동아시아에서 온 사랑의 이야기 제 56 호 2021 년 1 월 9 일

Sawatdee Krop? 2020 년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과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이 사실었습니다. 그러나 2021 년 새해는 결국 어김없이 또 다시 밝아오고야 말았습니다. 이 지면을 빌어 금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

저의 사역도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해가 되기는 했지만, 그래도 저는 결국 다시 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. 지난 두 달 동안에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.

첫째는 제가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파야우 성경 신학원(PBS)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의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텀에는 성경 해석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. 30 년 전에 쓰던 태국말을 다시 불러내어 강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창한 태국말로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모쪼록 태국말을 다시 회복하여 사용하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. 감사한 것은 이 상황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분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지난 달에는 태국에 들어와서 첫번째로 파야우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태국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 전보다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렸다는 점입니다. 10 여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아직 현지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실하게 현지어를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분께서 저의 귀를 열어서 기차나 버스에서 현지어로 안내 방송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, 태국에서 이번에는 태국에서 눈을 여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.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. 그렇다고 현지인들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태국어의 글씨 체계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정도입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배움과 숙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.

(파야우 성경 신학원(PBS) 교수진)

둘째로 그 동안 코로나 19 로 인하여 태국에서 진행할 수 없던 사역들을 제한적으로나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. 먼저 방콕에서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 하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. 지난 12 월 11 일부터 1 월 4 일까지 있었던 성탄절 방학을 이용하여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태국에서 또 다시 코로나 19 가 확산되면서 지역 봉쇄의 조치가 취해지는 바람에 12 월부터 사역하는 것은 사실상 또 다시 불가능해져서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비상 상황이 완화가 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은 후에 돌아왔습니다. 이제 코로나 19 에 대한 백신이 태국에도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상황은 긍정적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자유로운 사역의 활동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셋째로 태국 남부에서 작년 10 월에 기획했던 한 지역 교회의 30 주년 행사와 함께 SBS 방법론에 따른 성경 세미나 하나를 개최하는 일은 그 모든 계획을 1 년 후로 미루어서 31 주년 행사로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동시에 저는 금년 1 년 동안에 여기 파야우 성경 신학원(PBS)에서 강의를 하는데 충실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여기 저기 여행하면서 일을

진행시키는 중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여기 태국에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후원을 요청하는 곳도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.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두 가지가 마음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. 첫째는 교회 개척을 위한 후원이고 또 하나는 신학생을 위한 후원입니다. 첫째 문제를 위해서 한 교회가 설립되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데까지 후원하는 데에 3 년간의 후원을 기준으로 약 3 만불 정도가 필요하고, 둘째 문제를 위해서는 4 년의 학비 후원을 기준으로 4 천불 정도가 필요합니다. 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필요들을 위하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동아시아에서 이영기 선생
동남아시아 태국에서